본문 : 마태복음 20 장 1-16 절
제목 : 후하게 셈해주는 하나님 (09/27/2026)

1.
지중해 해안은 포도가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두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포도원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지중해 지역의 포도원 농장이나 올리브 농장만 찾아 다니는 여행객들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들은 소믈리에, 음식 잡지의 기자, 푸드 디자이너인데 팀이 되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시골 구석 구석을 돌며 포도원이나 올리브 농장에서 밥을 얻어 먹는 방식으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장의 주인들이 그렇게 인심이 후하다고 말하더군요. 많은 농장주들은 공짜로 숙식을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거기다 자신들이 손수 만들고 저장해 놓았던 그 나라의 토속 음식들을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양, 토끼, 닭까지 잡아 손님을 접대하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농장에서 먹은 하농이라는 스페인식의 돼지 고기 요리는 그들이 먹어 본 돼지 고기 요리 중 최고였다고 자랑을 하더라구요. 어느 나라나 시골 민심이 좋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농장이 잘 되고 풍성하게 운영되니 마음도 넉넉한 것이겠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든 말도 있잖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도 매우 인심이 후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후한만큼 일꾼들도 기쁘고 감사해야 할 텐데 농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일꾼들 중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나라에 관한 이 비유는 인심이 후한 주인과 마음이 불편한 일꾼들이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2.
갈릴리 호수 주변의 구릉지대는 지중해성 기후에 땅이 비옥하여 포도와 올리브 농사 짓기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적은 강수량에 햇볕이 많습니다. 거기다 적당한 바람까지 불어 옵니다. 가을에도 건조하고 선선하기에 포도와 올리브가 자라기에 이상적인 기후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대지주들은 거대한 포도원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포도를 거두어 들여야 했기 때문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그런 갈릴리의 삶을 배경으로 한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은 시장으로 나갑니다. 아고라라는 헬라말인데 도시나 타운의 중심부에 있는 너른 광장의 공터를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아고라는 장도 열리고 정치 연설도 하는 그 타운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부였죠. 주인은 아고라에서 일용직 일꾼들을 사와서 일을 시킵니다. 데리고 올 때 적당한 임금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정당한 임금'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아침에 일꾼을 고용했는데도 웬일인지 주인은 오전 9 시가 되어 다시 아고라로 나갔고, 거기에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주인이 농장에서 일하라고 부릅니다. 12 시, 3 시, 5 시에도 주인은 나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 일을 시킵니다. 6 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었으니 오전 9 시에 온 사람들은 아홉 시간을 일했고, 12 시에 온 사람은 여섯 시간, 3 시에 온 사람은 세 시간, 5 시에 온 사람은 한 시간을 일했습니다.

3.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들이었습니다. 땅 주인이 몇 명의 대지주들 이었던 거죠. 소작농들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바쳐야 할 지대는 수확의 35%에서 40%였습니다. 게다가 로마가 거둬가는 세금을 추가로 내고 종교세까지 내고 나면 정작 그들에게 남는 것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흉년이라도 들면 그것도 내지 못하고 농노로 전락하거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날품팔이 일용직 노동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생활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대규모 도시 건축을 위한 공사를 위해 백성들에게 온갖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에게는 그물의 크기 배의 크기에 따라 물고기를 잡기도 전에 세금을 미리 떼어갔죠. 물고기가 잡히더라도 어부들에게서 헐값에 사들여 외화벌이를 위해 염장처리하여 해외에 팔아 먹었습니다.  갈릴리 민중들의 삶은 벼랑끝에 선듯 위태로웠습니다. 아고라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난 빈민들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가면 가족 모두는 그날 하루 종일 굶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4.

노동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퇴근 시간과 월급이 통장에 들어 온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겠죠. 저도 젊은 시절 가끔 막노동을 할 때 일당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였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질 무렵 6 시가 되어 주인은 품삯을 계산해 주기 위해 일꾼들을 모읍니다. 맨 나중에 5 시에 불려 온 사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니 매우 후하게 받은 것이죠. 오전 9 시에 온 사람들은 오후 5 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니 은근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니 자신들은 아홉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웬 떡이냐 하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한 데나리온이 지급됐고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주인의 넉넉함에 대해 감사했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만이 그들 맘 속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9 시에 온 일꾼들이었다면 안 그랬겠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일한만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우리의 셈법과 다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간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대우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대우라 생각합니다. 직업에 따라 어떤 특수 직종은 같은 노동시간이라도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노동 시간, 노동의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절박하냐에 따라 셈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이들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은혜와 자비의 본질입니다-** Rob Bell"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거나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지점은 그럴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선물이 주어지는 것 같을 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일꾼들의 밑바닥에 깔린 마음이 이것이었죠. 우리는 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절박한 이들이 받는 은혜의 선물을 시샘하고 분노하는 것인가요?

5.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후한 주인과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속 좁은 일꾼의 대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이들을 가리켜 본문은 먼저 된 자 또는 첫째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을 꼴찌라고 부르고 있구요. 예수님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비유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첫째 된 사람은 누구이고 꼴찌는 누구일까요? 이 비유 직전에 마태복음 19 장 마지막 단락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들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말해 줍니다. 이 말씀의 끝에서도 동일하게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직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부자청년 이었습니다. 여기서 첫째가 된 사람은 부자청년처럼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면서 보상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꼴찌 된 사람 또는 나중 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 된 이들과 꼴찌들 사이에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 예수님은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왜 나만 항상 꼴찌일까 억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본문의 5 시에 주인의 눈에 띄어 선택받은 사람들의 절망감을 상상해 봤나요? 이들은 오늘도 헛탕인가 보다 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시간까지 인력시장에서 픽을 당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적 조건도 별로 였을 것이고 눈에 띄지 않는 볼품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실패감과 좌절감은 한 두 번이 아니었고 꾀나 긴 시간 동안 이어져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고 일을 시켰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게다가 한 시간 밖에 일 하지 않은 그들이 하루 일당을 듬뿍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열등감과 실패감은 주인의 후한 마음에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우리 중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뤄지지 않는 기도제목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이유, 건강 상의 이유로 절망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민자로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씨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꼴찌의 마음으로 괴로워 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박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고 어떤 자격이 있느냐가 그분에게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작동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치 마십시오. 주님은 후한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자기가 겪은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져 6 개월 넘게 일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절박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일했던 무슬림 교수님이 찾아와서 "너 힘들다며, 좀 보태라"고 하시며 체크를 주고 가셨답니다. 하나님은 이교도들의 마음마저 움직이시니 놀랍죠? 또 어떤 날은 우박이 그 지역에 엄청나게 쏟아져 집집마다 자동차에 헤일 데미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평균치로 체크를 주며 보상해줬다고 합니다. 그덕에 수리비를 좀 아껴서 수천불의 생활비가 생겨서 몇 달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자비가 쏟아진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포도원 주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구나. 절박한 꼴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렇지 않나요?

6.

지난 주 설교에서도 강조했듯이 천국은 영원히 살만한 가치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영생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처럼 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롬 12:15)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12 시, 3 시, 5 시에 불린 일꾼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울 줄 알았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9 시에 불려왔던 일꾼들은 5 시에 불려온 일꾼들과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그들이 받은 대우에 대해 함께 기뻐해주지 못했습니다. 비교 암, 염려 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 속에서 암같이 작용합니다. 내가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채, 비교할 때 삶이 비참해집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뙤약볕에 앉아 하나님께 시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자 기분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박넝쿨을 거둬 가시자 대놓고 하나님께 자기 상한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본문의 먼저 불려온 일꾼의 모습이 딱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들의 편협하고 좁은 속 마음일지 모릅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극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인색함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조금씩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디 꼴찌로 실패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한숨을 아시고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아가 그런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누가 소외되었고 꼴찌의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는지 살피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후한 마음을 경험한 꼴찌였던 사람들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소그룹 나눔>

1. 꼴찌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나요? 내가 요즘 씨름하고 있는 절망과 실패감을 주는 문제가 무엇인지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눠봅니다.

2. 주님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비교 암 또는 인색한 마음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봅니다.

1.Are you struggling with the feeling of being at the bottom or coming in last? Share with the group the issues you are wrestling with these days that are causing you to feel discouraged, hopeless, or like a failure.

2. The Lord calls us to a life of rejoicing with those who rejoice and weeping with those who weep. Could the greatest obstacles to this be our tendency to compare ourselves with others or our unwillingness to share what we have? Share your thoughts on how we can overcome these obstacles.